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

일시 | 2017. 4. 4.(화) 10:50~16:30

장소 | 대전 호텔리베라 제니스홀

주최 | 교육부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

시 간		내 용	발 표
~10:50		등 록	
10:50~11:00	10'	인사말씀	
11:00~11:30	30'	2017년 학업중단 예방 정책	김 사 옥 사무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11:30~12:00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조 규 필 단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단)
12:00~13:00	60'	중 식	
13:00~14:00	60'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	차 명 호 교수 (평택대학교)
14:00~14:10	10'	휴 식	
14:10~14:40	30'	학교가 변하니 학생도 변한다	임 동 현 교사 (전남공업고등학교)
14:40~15:10	30'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업중단 예방	이 승 주 교사 (웅상고등학교)
15:10~15:40	30'	나이스를 활용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박 창 준 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0~15:50	10'	휴 식 (설문지 작성 및 제출)	
15:50~16:30	40'	시·도별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논의	



CONTENTS

- ----- 2017년 학업중단 예방 정책 1
김 사 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9
조 규 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단장
- -----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 23
차 명 호 평택대학교 교수
- ----- 학교가 변하니 학생도 변한다 39
임 동 현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사
-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업중단 예방 55
이 승 주 웅상고등학교 교사
- ----- 나이스를 활용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67
박 창 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2017년 학업중단 예방 정책

김 사 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조 규 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단장



www.mogef.go.kr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단
조 규 필 단장

 여성가족부



6,466천명 : 387천명

24천명 : 25천명 : 55천명

34천명 : 54천명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법적 정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현황('17년)

수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	24	15	9	9	6	3	5	1	31	9	13	15	10	16	15	18	3



○ 학업중단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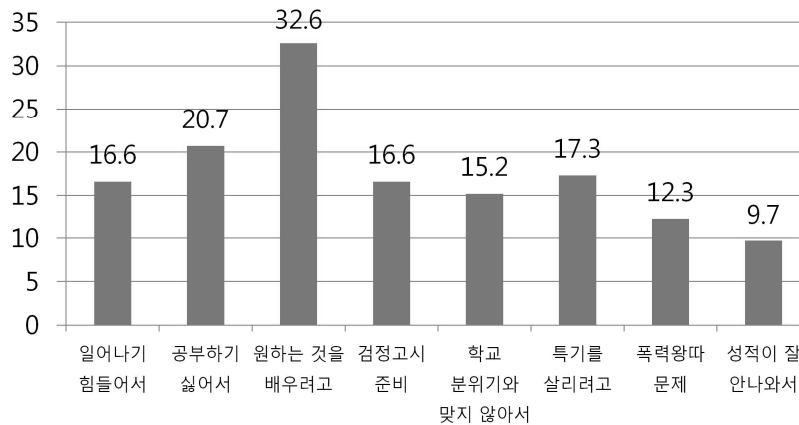
연도	초		중		고		계	
	전체	부적응	전체	부적응	전체	부적응	전체	부적응
2015	14,555	2,733	9,961	4,376	22,554	17,850	47,070	24,959
	(0.54%)	(0.10%)	(0.63%)	(0.28%)	(1.26%)	(1.00%)	(0.77%)	(0.41%)
2014	14,886	2,777	11,702	5,476	25,318	20,249	51,906	28,502
	(0.55%)	(0.10%)	(0.68%)	(0.32%)	(1.38%)	(1.10%)	(0.83%)	(0.45%)
2013	15,908	2,406	14,278	7,007	30,382	25,016	60,568	34,429
	(0.57%)	(0.09%)	(0.79%)	(0.39%)	(1.6%)	(1.32%)	(0.93%)	(0.53%)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15

※ 괄호 안은 재적학생 수(조사대상 기간 4.1 기준) 대비 학업중단 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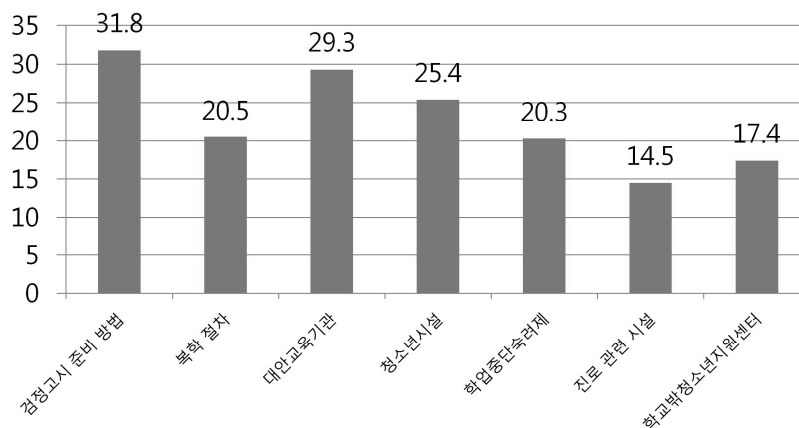
○ 학교를 그만 둔 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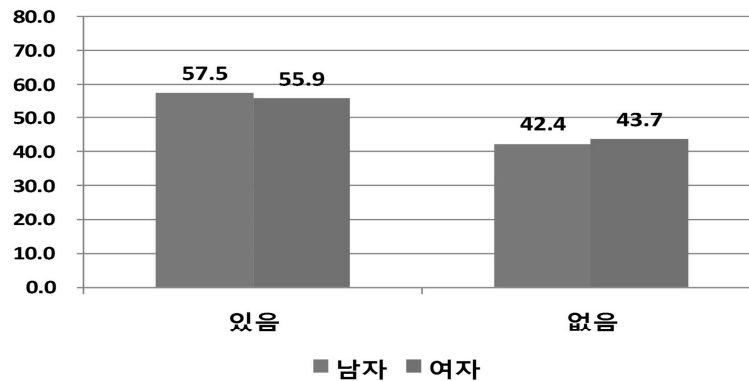
○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제공받은 정보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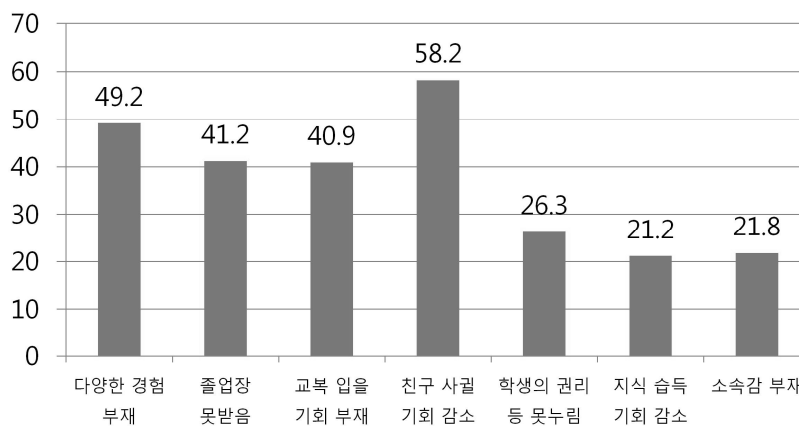
○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생활(후회 경험 여부)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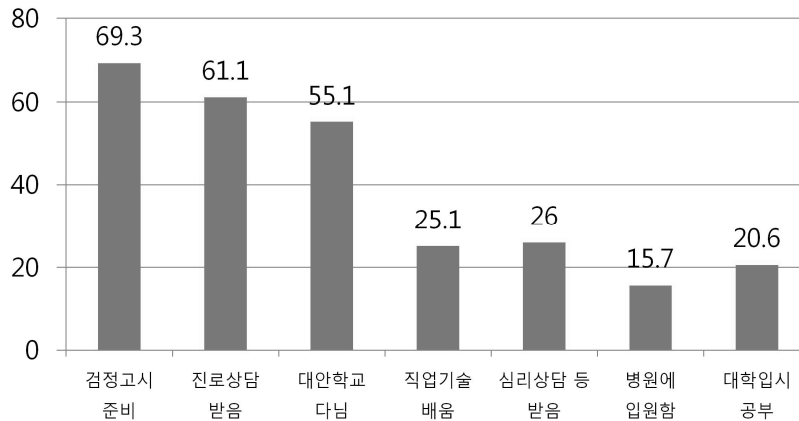
○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생활(후회 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 학교를 그만 둔 후의 경험실태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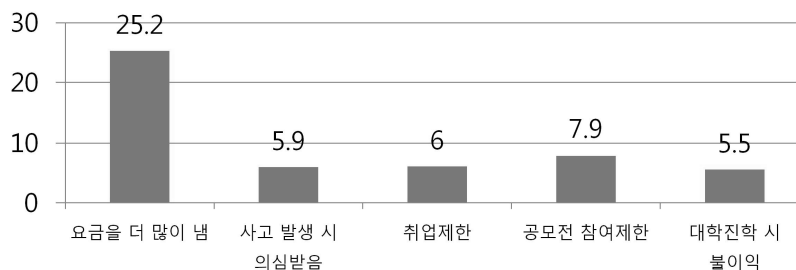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단위 : %)

선입견 편견 무시	진로 탐색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없음	구직 어려움	의욕 없음	교우관계 단절
42.9	28.8	26.3	25.8	19.9	19.7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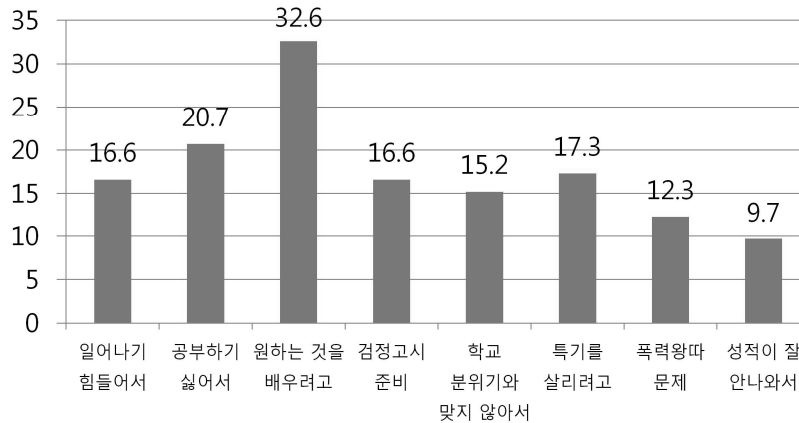
○ 학교를 그만 둔 후 불이익 경험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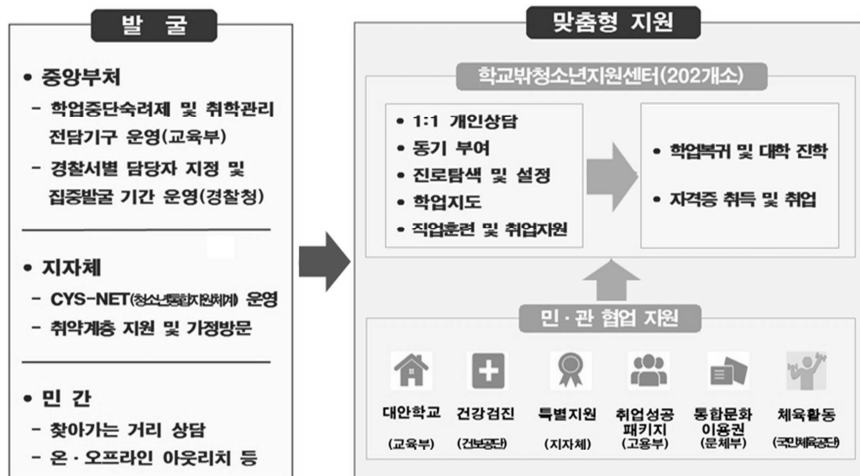
○ 학교를 그만 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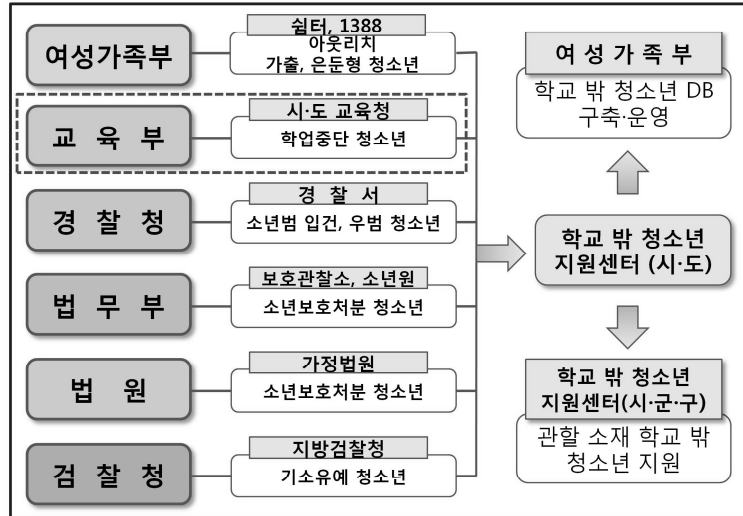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 학교 밖 청소년 찾아내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학업지원	취·창업지원	자립역량 강화
» 검정고시 이수지원 » 학습멘토링 서비스(2,000명) » 대입설명회 확대(연2회)	» 취업사관학교 9개 운영, 청소년 한부모 이주배경청소년 특화 훈련 과정 도입 » 전문 직업훈련이나 취업으로 연계하기 전 중간 단계 직업역량 제고 프로그램 » 창업교육 수요가 있는 센터 대상 전문 창업교육 프로그램 비즈니스 운영 » 취업성공 패키지 등 전문 직업 훈련 연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유활동 공간 마련(한국마사회 협력) »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력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 체육활동 지원 확대 » 근로 권익, 법질서 의식 등 기본소양 교육 » 꿈드림 청소년단 등을 통한 리더십 향상



○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충남 홍성군('14)



부산 부산진구('15)



인천 서구('15)



서울 강동구('16)



○ 학교 밖 청소년 활동사진



검정고시 공부방



난타체험(성장여행캠프)



직업체험(PC 정비사)



진로종합캠프



○ 청소년증 소개

“청소년증” + 교통카드 기능



2016년도 주요성과

○ 학교 밖 청소년 연계 현황

(단위 : 명)

계	교육청	경찰서	보호 처분	소년원	검찰청	복지 시설	CYS- Net	본인	가족	기타
55,909	25,098	2,334	2,646	1,066	28	396	10,870	6,491	1,806	5,17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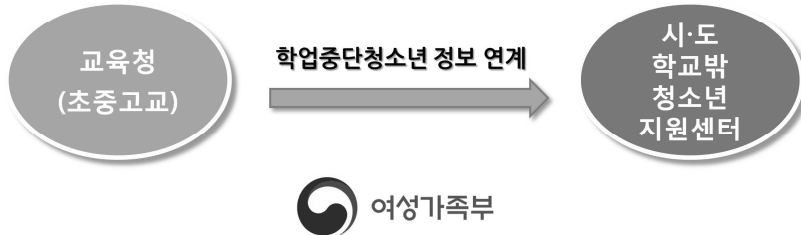
서비스 제공인원수	세부 현황		
	소계	학업복귀	사회진입
53,553	14,684	8,384	7,062



부탁드립니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 학교를 그만 두는 청소년과 부모님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② 적극적인 정보 연계

- ✓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의무화(법률 개정 '17.3.21 시행)
 -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부탁드립니다

③ 학업중단숙려제 상담기관으로 활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변경안)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법정대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의사 확인 ○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름 ☐	대리자 부 ☐	주대음 ☐	연락처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에 관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부하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또는 양)	
법정대리인 성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의 상담 - 청소년의 상담기록 - 청소년의 주소 - 청소년의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 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의 시 제력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청소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년 월 일		(동의 ☐ 미동의 ☐)	
법정대리인 성명 (학생 또는 양)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	정보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청소년의 상담 - 청소년의 상담기록 - 청소년의 주소 - 청소년의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 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 ☐ 미동의 ☐)	
법정대리인 성명 (학생 또는 양)			
○ ○ ○ 학교 장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의 상담 - 청소년의 상담기록 - 청소년의 주소 - 청소년의 연락처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 선택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 선택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 선택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 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의 시 제력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필수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추가 정보 > 선택 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처리 제공에 동의하는 사항만 기재			
성명	남, 여	보통지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학교()	학년()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종단사망	종단사망	종단사망	종단사망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년 월 일 (동의 ☐ 미동의 ☐)			
위 본인 성명 (학생 또는 양 / 법정대리인 성명 (학생 또는 양)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	정보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청소년의 상담 - 청소년의 상담기록 - 청소년의 주소 - 청소년의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 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 ☐ 미동의 ☐)	
위 본인 성명 (학생 또는 양)			
후 반 14세 미만의 경우 자신의 정보제공을 위해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주소
법정대리인 성명 (학생 또는 양)		주소	
○ ○ ○ 학교 장		주소	



MEMO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

차 명 호 평택대학교 교수



공감하며 소통하는 레시피



차 명 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1. 들어가는 말

효과적인 수업은 특정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전달의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과정을 효과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것은 수업의 핵심주체는 수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학습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효과적인 학습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생산적인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한 수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전달할 지식을 중심으로 교과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교과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수업에서는 자신이 전달할 내용을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강사는 강사대로, 학습자는 학습자대로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게 되고, 수업은 아무런 의미 없는 활동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완벽한 대화 혹은 일방적 설득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대화는 설득이나 충고, 지시와 명령과는 다르다.

효과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대화방식 가운데 탁월한 기술을 익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 기초를 아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대화습관의 체계적 관리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방법,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개개인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특정 개인, 혹은 다수의 집단과 상호 작용하도록 돕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상담은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그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담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관계형성과 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강의에 대한 심리적 태도

수업을 하다보면 이를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있고, 공부를 하면서 싫증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이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의 원인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가드너 박사의 경우, 아이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지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각자의 지능형태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심심해하면서 집중을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오랫동안 집중해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무엇이 서로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강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부분은 화자의 심리적 준비태세이다. 대화의 양 당사자가 어떠한 심리적 기초, 혹은 준비태세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특정 교수기법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여기서는 스피치 혹은 대화의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찾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스피치 시스템의 구성

모든 스피치는 실제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 정보를 낱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로 묶어서 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정보중심적 스피치나 대화는 영향력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대화나 스피치는 모든 사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일단 성장이 일어나면, 과거의 것은 최소한의 가치 밖에(도) 가지지 못한다.

“Yesterday is history, today is a present, tomorrow is mystery.”

어렸을 때, 우리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보게 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왜 자신을 발달시키고, 성장시켜야 할까?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가? 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하지? 그냥 조금 모자라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삶에 대한 질문들을 해 본다.

진짜 우리는 왜 미래를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참고,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고 본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남궁 연이 특강을 하는 동안에 잠깐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그가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중요했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를 측정했던 장난감이 왜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했다. 왜 그럴까? 왜 한때는 너무 소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을까? 요새 인형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엔가 성장을 하고나면, 더 이상 과거에 소중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변화가 일어나면 과거의 것은 모두 소용이 없는, 최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 된다.

어릴 때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인형과 충과 같은 장난감이 내 삶을 지배했지만, 개인이 성숙하고 나면, 이런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성숙되었다는 것은 더 넓고 높은 수준에서 삶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여유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는 약점과 놀이조차도 힘이 된다. 한 차원 낮은 곳에서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대화는 개인이 성장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돕는 과정이다.

비효과적인 대화나 스피치는 사건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어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화가 있다. 이것은 마치 재미있는 유모어를 하나 가지고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대화는 이벤트 중심의 대화방법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내성적인 것 같으니까 웅변학원에 보내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외국으로 보내는 것 등은 이벤트 중심의 육아방식이다. 부모들이 무엇을 바라고 해 준 일들 아이들은 어느 정도나 기억하고 있을까? 금강산에 한번 데리고 다녀오면 무엇을 기억해서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아무 기억도 남지 않는다. 왜? 이벤트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대화나 효과적 스피치는 시스템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소에 금강산을 포함하여 한국의 5대 명산을 여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 둔 사람이 북한이 개방되어 금강산을 다녀오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한 성취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목표가 없던 사람은 우연히 친구 모임에서 금강산에 가게 되어, 여행을 다녀오면 금강산 구경 한번 했다는 것, 경치가 좋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이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성공과 실패 모두가 스피치를 개발하는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언어화하지 않은 이야기는 사라질 뿐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언어화되었을 때, 보다 분명한 형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변경 및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오늘 이 장소까지 움직이는 과정에 기억에 남는 것들은 결국 언어화를 통해 이름붙인 것과 스토리가 기억에 남게 된다.

언어화되지 않은 정보들은 무의식 중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삶에 특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고 생각해 보라. 아이는 그 여행에서 부모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모든 것에 앞서, 내가 있는 사람이 되라.

나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나의 가치는 상황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하지만, 원래 자신의 가치를 낮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자.

어느 대학교수가 강의 도중 갑자기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지요... 그걸 본 교수는 갑자기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먹에 꽉 쥐어서 꾸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또 그걸 다시 바닥에 내팽개쳐 쳐서.. 발로 밟았고... 수표는 꾸겨지고 신발자국이 묻어서 더러워졌습니다... 교수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당연히 손들었겠지요 학생들은...

그걸 본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꾸겨지고 더러워진 10만원짜리 수표일지라도..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나’라는 것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꾸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전과 다르지 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사회의

바닥으로 내팽겨쳐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란 것의 가치를... 소중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미확인)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라는 김 현대의 글을 읽어보자.

어느 장님이 팻말을 목에 걸고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 장님에게 동전을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님이 쪼그려 앉아 빵조각을 먹는 것을 보고 한 청년이 장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했던지 그 장님을 위해 팻말의 글귀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은 팻말에 있던 글귀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답니다.”

그 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장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님 앞에 놓인 강통에 동전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글자 몇 개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은 메말랐다는 반증이겠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당신의 풍부한 감성으로 그 간격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세상은 당신의 간절함으로 인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장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 제약이다(the Same Chunk).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다. 그러나 꽃을 보는 것은 원하는 일이다(Chunk Up).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chunk에서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모든 필요를 나라고 하는 개인이 모두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장님에게 필요한 도움은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내가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그러나 chunk up을 시키면 구체적 상황에서의 도움을 요구하게 된다. 봄날의 꽃을 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돈도 들지 않는 일이다. 돈이 들지 않는 일에 비교하여 볼 때, 나는 공짜로 누리고 있는데, 그 공짜 혜택을 타인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타인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쉽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2) 긍정적 목표의 설정

“우유를 쏟지 마라,” “아빠 오디오 만지지 마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마라,” “아휴, 넌 이것도 못하니.”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정적인 자기상을 키워주는 일과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일 뿐이다. 자녀가 ‘무엇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다는 뜻이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어떤 충고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축구대표선수단의 감독인 히딩크는 선수들이 슈팅에 실패를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호되게 나무라면서 아쉬워할 시간이 있으면 다음 플레이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한국 선수들에게 승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무엇을 못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감독은 선수들에게 가르켜 줄 것이 없다.

히딩크의 경우 프랑스나 체코에 5대 0으로 졌을 때도 “소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수들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지는 시합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고, 선수들은 자신이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원리는 청소년들의 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긍정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둘 다의 체험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3. 듣기와 설득의 실제

타인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상호간의 참 만남에 근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혹은 직원이 민원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 어느 한쪽은 자신의 권한이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따라서 훌륭한 조력은 너와 내가 동시에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개방된 마음으로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나만 있고 너는 없는 대화나 너는 있으되 나는 없는 대화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지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어떤 합의에 이른다하더라도 양자가 모두 불만스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효과적 장면에서는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는가? 아마도 이 질문은 어떤 이론적 접근을 취하든 공통적으로 대답을 해야 할 요소이다. 효과적 설득과정에 나타나는 대화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듣기의 중요성

인간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크게 화자와 청자의 말하기, 듣기, 해석하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말하기는 자신이 해석하거나 부호화한 어떤 내용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듣기는 상대방이 보내오는 부호화된 내용에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해석은 듣기와 말하기에 모두 관여하여 보내오는 정보들을 부호화하고 해독하는 과정을 지칭할 수 있다.

관심기울이기와 적극적 경청은 모두 듣는 행위의 기술이다. 관심기울이기 기술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나타나는 신체적 행동,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비판, 충고, 분석, 질문 따위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의 의미를 자신이 느낀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느낀 메시지의 의미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종합적으로 말하면 듣는다는 것이-- 무슨 기술에 해당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지만, 상담에서만 듣기 기술이 강력히 요청되는 전문직은 드물 것이다.

기실 듣는다는 것이 무슨 기술에 해당되느냐 하는 질문은 인간 대화의 독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컴퓨터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컴퓨터는 듣기의 과정, 즉 입력과정이 잘못되면 아무런 정보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산출이 나오게 된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도 어떤 명령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의 경우는 컴퓨터와 다르다. 인간은 듣기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정보처리 과정이나 결과처리 과정에서 옳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은 자신의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했으나, 교사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열심히 보자. 응,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경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통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제대로 듣지는 않았지만, 학생이 적절히 해석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대화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듣기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때로 잘못된 것이기도 하다. 입력이 잘못된 경우 컴퓨터는 바로 잘못되었음을 알려 오지만, 인간의 경우, 어지간히 잘못된 입력 혹은 말하는 내용은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 따라서 부적절한 듣기 행동이 반복될 경우, 화자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게 되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관심기울이기와 적극적 경청 기술은 대화를 열도록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면 듣기라고 하는 것이 상담에서 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듣기의 가치, 듣기의 대상, 듣기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 실제 듣기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듣기의 가치

듣기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는 점이다. 나와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가치로운 존재이고, 그의 이야기나 고민은 듣고 공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상대편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께찮을 것 같은 참 인간이라고 느끼는 때는 바로 듣는 사람이 자신을 인간으로 대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이다. 우리는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인간으로 그를 만나게 된다.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간이다.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나서, 피노키오는 인간의 신체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나 신념 혹은 욕구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의 가치나 신념, 욕구 혹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보다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야기를 듣거나,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해 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듣기의 참된 가치는 듣기에 있다. 미카엘 엔데의 소설에 나오는 모모의 경우를 살펴보자. 마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모에게 가 보라는 이야기를 한다. 모모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재주가 있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든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끔, 그렇게 귀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보면 수줍음이 없는 사람도 어느 덧 대담하게 거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 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모는 그렇게 귀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는 카나리아 한 마리를 가져왔다.....하지만 모모는 일주일 내내 카나리아에게 귀를 기울였고, 드디어 카나리아는 즐겁게 지저귀기 시작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직도 귀기울여 듣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모만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시도해 보길 바란다.』

- 미카엘 엔데의 모모(한미희 역)

우리들은 타인의 이야기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로하여금 자신의 생각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신의 감정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느끼게 도와주거나 특정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자연 사물과 대화할 때 마음이 편안해 지고, 바보스럽지만 그 속에서 반성을 통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은 자연이 이처럼 잘 들어주고, 내가 자연의 이야기를 잘 듣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대화가 시작되고 지속되도록 하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 존중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한 인간이며, 그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도록 돕는 행위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적인 듣는다는 의미는 대화를 위한 예비행위이고, 정확하지 않고 관심을 덜 기울인 듣기를 포함하지만, 상담에서 듣는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3) 듣기의 대상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어떻게 문제 상황에 봉착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상담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소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와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며,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르다. 그래서 때로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걱정도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상담 중반을 넘어서서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는 내담자를 보며 좌절하기도 한다.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이 무엇 때문에 힘든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는 내담자라고 하는 듣기 대상의 주체인 인간에게 관심기울이고 듣기보다는 그가 가져온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 즉 나와 같은 장소에서 호흡하며, 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한 완전한 인간--우리도 그러하니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져온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 그 문제를 말하는 행위 주체인 인간은 뒤편으로 물러나고, 문제만 전경으로 남게 된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과 대안을 생산해야 할 의무가 상담자에게 주어지게 되며, 상담자 또한 내담자와 똑같은 문제 장면에 빠져서 대안적 해결책, 혹은 문제해결을 통한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하지 못할 수 있다.

Martin Buber는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쏟는 경우, 나와 너의 관계에서 두 인간이 성숙하는 경험을 나눌 수 있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성숙하도록 일방적으로 돕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결이 나게 된다.

4) 듣는 방법

그렇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특히 말싸움이 일어났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를 생각해 보라. 싸움이 크게 되는 것은 이야기의 내용 때문에 심각해지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코방귀나 무관심한 태도, 거절하는 듯한 머리 움직임, 가당치 않다는

얼굴 표정 등등 때문에 화가 나고 더욱 심각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은 “당신이 아까라고 먼저 말했잖아.” 하면서 자신이 행한 비언어적 메시지는 무시하고 남편이나 아내의 말만 가지고 서로 트집을 잡게 된다. 서로의 말에는 일리가 있을 지 몰라도, 서로가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싸움을 자극할 만큼 크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할 때 방바닥에 누워서 “알았어.” 하고 말하는 남편이 미운 이유는 그의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타인에게 비언어적으로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다. 이 비언어적 관심을 제대로 쏟는 것은 이미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담에서 관심기울이기 행동으로 나타난다. 관심기울이기 행동에 대한 세세한 이론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 여기고 실습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듣는 방법을 고찰할 때 생각하여야 할 두 번째 요소는 개방적이고 총합적인 심리적 태도이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방어적으로--그리고 선택적으로--듣는 방법에 더 익숙한 경향이 있다. 왕왕 타인들과 대화할 때 중요한 이야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나의 입장은 결정해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귀로 듣고는 있지만(hearing), 이미 자신의 입장은 결정해 두고 설득하기 위해 듣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그래, 네가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마. 그래서 내가 너의 틀린 점을 꼬박 꼬박 지적해줄게. 그러면 너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나의 견해에 따르게 될 걸.”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모두 현실이고 진리인 반면 타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Gordon 박사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필요한 태도로 타인이 말하는 것을 정말 듣기를 원할 것, 특정 시기에 특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 타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그가 감정을 다룰 수 있음을 믿을 것, 감정이란 일시적이며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 그리고 타인은 자신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임을 자각할 것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듣기의 태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단연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라.’ 는 것이다. Rogers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늘 그렇게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다보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힘들텐데요.” 이 질문에 Rogers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늘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내담자를 대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의무만 되어버리고, 결국 상담은 하나의 부담으로만 느껴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반드시 해결되지 않아도 다른 사건이나 일이 긍정적으로 발전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와 다투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신나는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툼 사건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고,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적이나 방어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개방적이고 총합적으로 듣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경청과 스피치의 기법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듣기에 앞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기실 듣기와 말하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논하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지 모른다.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제대로 들어야만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말해야 제대로 들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듣기를 통하여 인식된 이야기들은 몇 번의 오류를 거치면서 상호간에 대화를 부담스럽게 만든다. 듣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기가 어렵다. 때로 우리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인간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해결책을 찾아서 자신이 유능한 사람임을 입증해 보고 싶은 의도를 가진 경우가 있다.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을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보면 자신이 그대로 그의 상태에 빠져 어떠한 대안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사람은 우리가 특정한 기술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날 수 있는 그대로의 너임을 자각하는 것이 진짜 사람들의 소리를 듣도록 도와주는 첩경이다.

21세기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식과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의 특성 또한 가시적 지식에서 비가시적 지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즉시적 지식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바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 즉, 지금의 만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대화를 통하여 지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남김없이 처리할 수 있을 때, 그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기존의 지식을 초월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속성을 가진 사람이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대화 속에서 끝내지 못한 주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MEMO



학교가 변하니 학생도 변한다

임 동 현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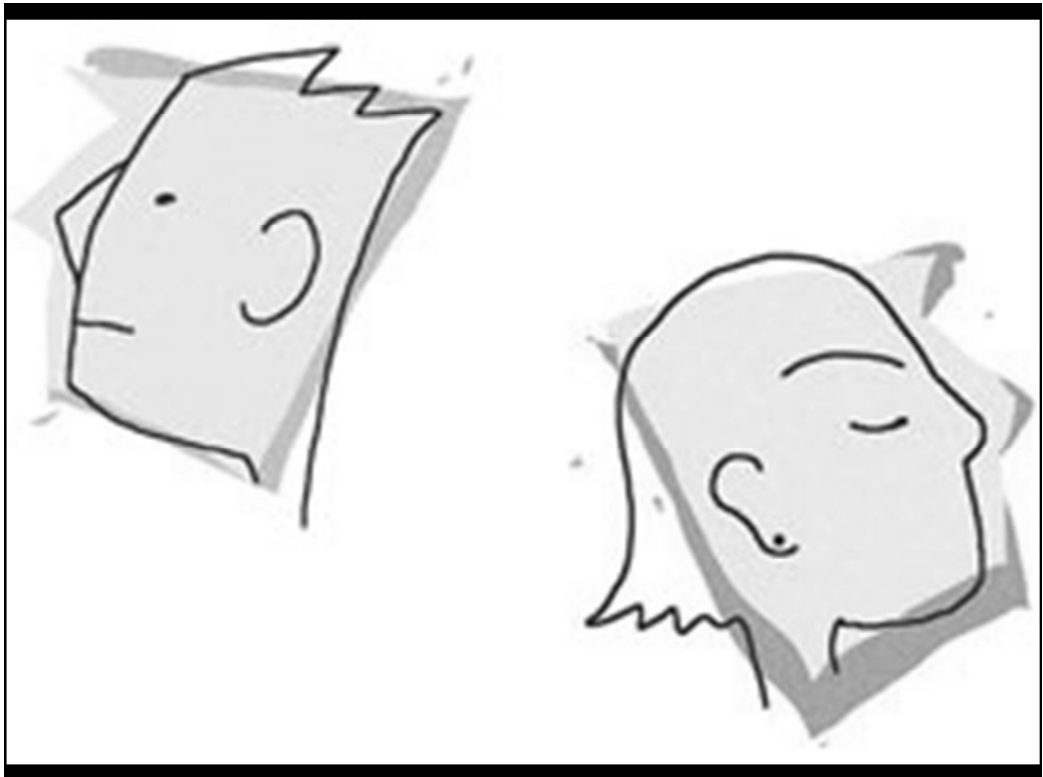


학교가 변하니 학생도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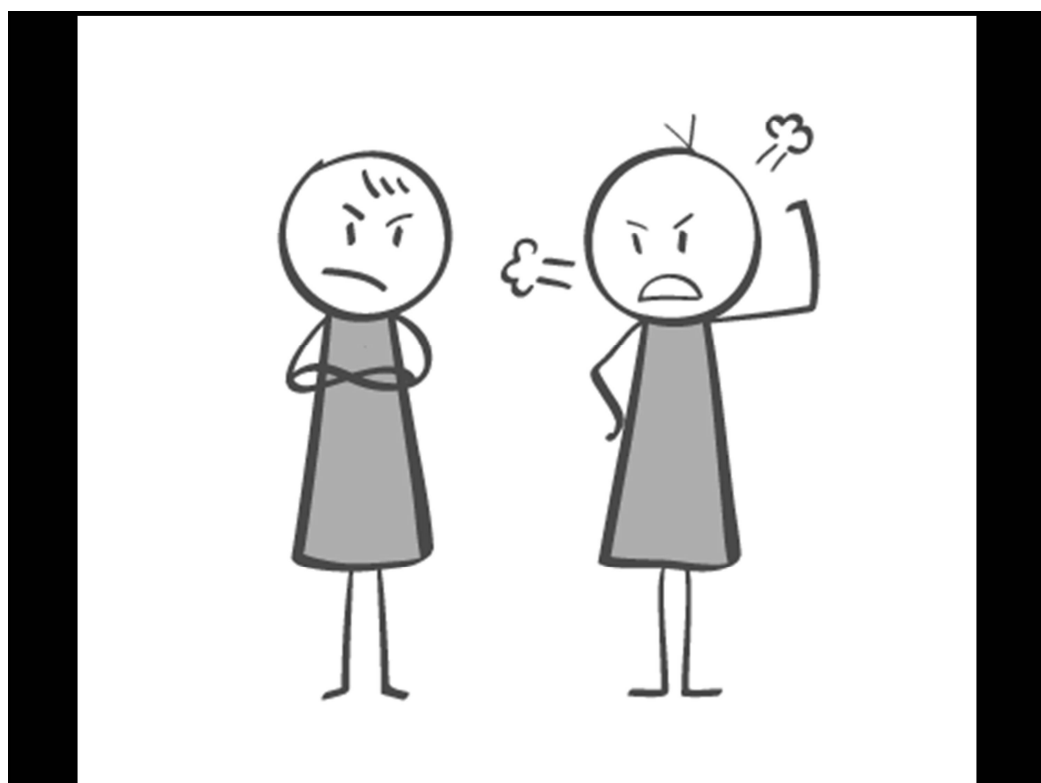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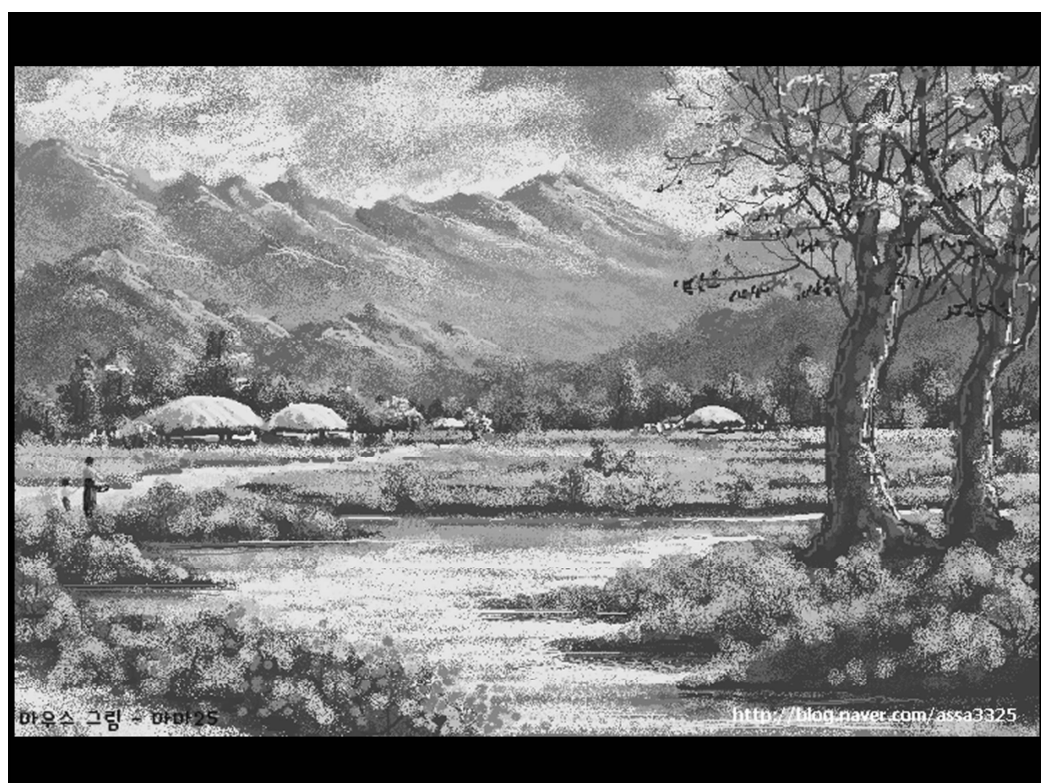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사 임동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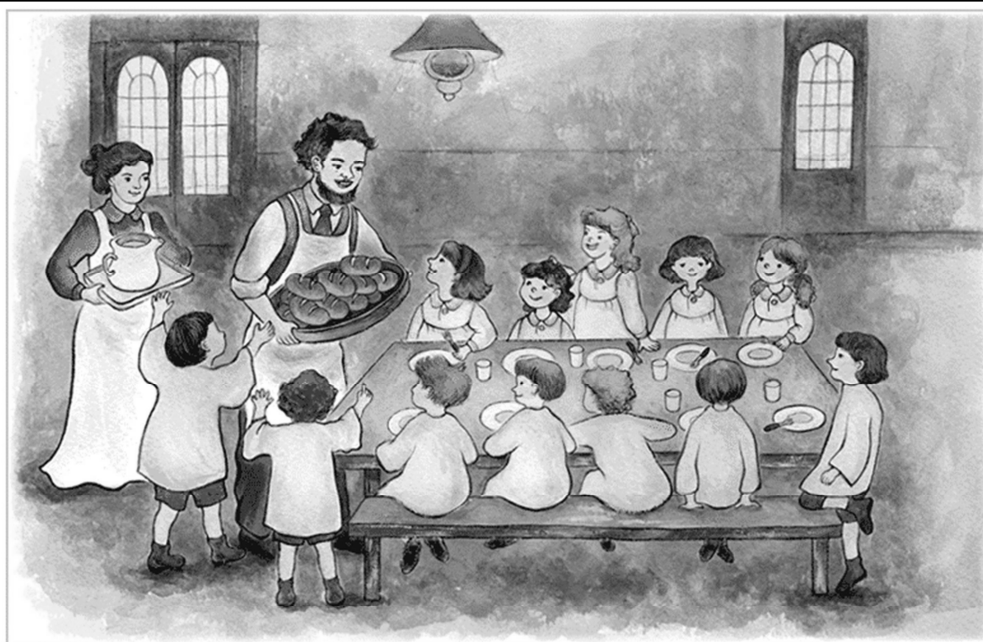


Copyrights-육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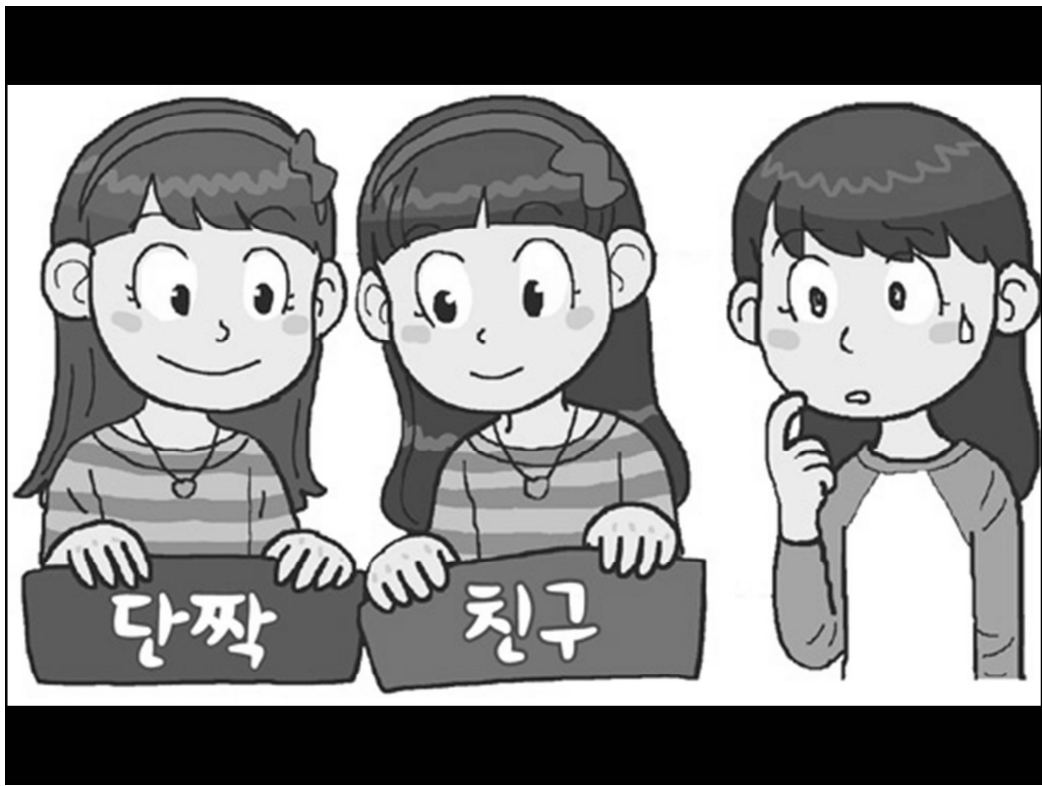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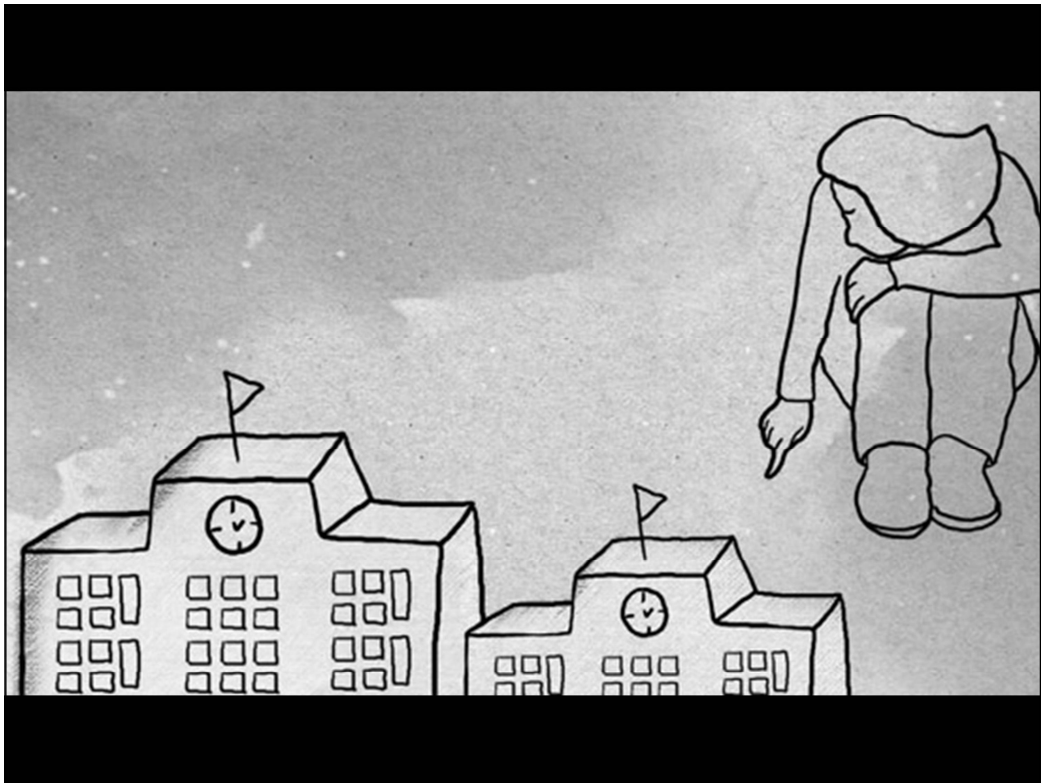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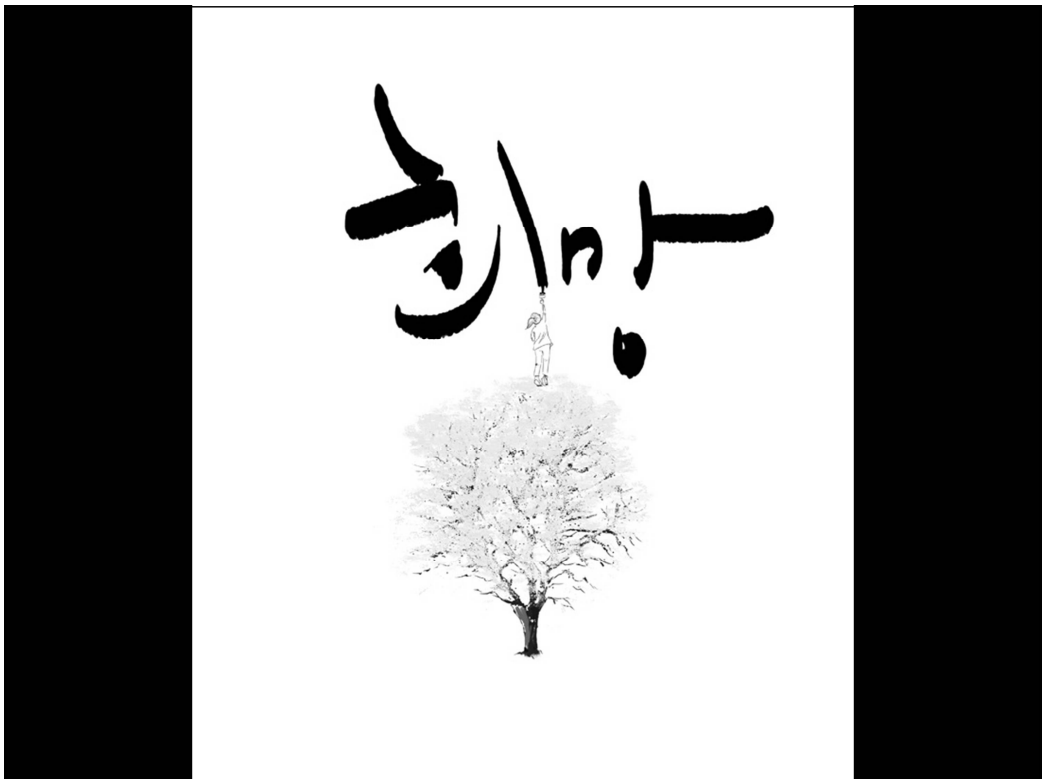












MEMO

MEMO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업중단 예방

이 승 주 웅상고등학교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업중단 예방



이 승 주 웅상고등학교 교사

1. 학교의 한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의 무능력이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이 오직 대입에만 초점 맞추어져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서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한가지로 점철되었다. 즉 One way monologue를 통해서 강요하는 Recoding 이다. 이것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학교는 1교시에 영어라는 어퍼컷, 2교시에는 수학이라는 라이트 썸, 3교시에는 국어라는 초크, 4교시에는 타 죽을 것 같은 화학 등¹⁾ 무한한 폭력으로 학생들을 대한다.

무기력한 아이들은 공부만 강요하는 학교가 한없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서는 교사와 부모가 원망스럽다. 물론 학교와 교사, 부모는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위안한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의식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은 무기력한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수업에 집중한다. 수업을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지 않는 교실 그리고 배움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학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자기 동기에 의해서 선택했는가? 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물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진로)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조력하기 보다는 만들어 놓은 길을 잘,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도운 것도 아닌 이끌어 왔다. 과거에는 그 길이 명확히 보였고 행복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설정된 교육과정은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에 나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예나, 다양한 예를 여기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시

1) 절대로 언급된 과목을 폄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일어설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즉 삶을 살아내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자기 동기에 의한 학생경험중심의 교육과정이다.

2. 지역사회와 학교가 왜 손을 잡아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업장이 구비되어 있다.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 업종, 체육시설, 공공기관 등 학생들의 진로와 닿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학교가 가지지 못하는 수십 가지의 커리큘럼을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면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할 것인가가 궁금할 텐데 필자는 방법보다는 기본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트스쿨(The Met School)의 교장인 대니스 릿키(Dennis Littky)와 학업중단은 없고 학교중단만 있다고 주장하는 전 태봉고 교장이자 현 대안중학교(남해중) 교장인 여태전은 사실 배움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보다는 학교 밖에서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BS 창사특집 ‘바람의 학교’의 중요한 철학이었던 ‘바람이 부는 곳은 어디나 학교다.’라는 문구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생각들은 첫째,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 둘째, ‘삶의 현장에서 직접 배운다.’, 셋째, ‘배움은 곧 삶이고 삶이 곧 배움이다.’ 이다.

학교가 입시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지역사회와 단절되기 전까지 원래 지역사회와 학교는 하나였다. 그 때는 학업중단(drop out)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존재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학업중단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손을 잡는 것은 교육의 본래적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프로그램 세부 내용²⁾

1) L.T.I. 준비 과정

구 분	내 용
대안교실 학생파악	○ 대안교실 학생모집 ○ 학생들의 진로희망, 취미, 특기 등 조사 ○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와의 협조 및 협의
꿈키움 프로그램 운영	○ 명확한 진로 희망이 없는 학생들 대상 ○ 진로 키워드 카드 작성 - 진로군 단위로 키워드 제시 ○ 꿈키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확한 진로는 아니더라도 희망 진로의 윤곽 파악
진로와 인턴십 조율	○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현재 확보된 인턴십 현장 조율 필요 ○ 왜냐하면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인턴십 현장과 학생의 진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 ○ 따라서 학생 본인의 진로와 비슷한 인턴십 현장에서부터 시작할 필요도 있음

2) L.T.I. 현장 섭외 방법

구 분	내 용
지역 전체 홍보 (간접 1)	○ 플랭카드 제작(담당부서 연락처 기입) ○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역사회에 L.T.I. 홍보 요청 ○ 관리자가 참석하는 지역 협의회시 지역 인사들에게 협조 부탁
인맥 동원하기 (간접 2)	○ 대안교실 참가 학생의 학부모를 통해서 인턴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멘토 소개받기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역유관기관 및 기업, 사업체와의 인턴십 협조 요청 ○ 만약 경찰, 관공서 등 국가기관에 인턴십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경우에는 상급 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협조 요청하는 방식(Top-Down)이 효율적임 ○ 학교 내 교사의 지역사회 인맥을 활용한 인턴십 협조 요청
직접 섭외 (직접)	○ 학생의 진로와 맞는 인턴십 현장 발견 ○ 전화, 공문 등으로 직접 만나서 L.T.I.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마련 ○ L.T.I. 프로그램 소개 자료와 함께 현장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인턴십 일정을 조율

2)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7) - 이승주 원고 중 일부 발췌

3) L.T.I. 진행 과정

구 분	내 용
걸음마 단계 - 동행 - (1학기 3~4월)	○ 첫 1개월은 가능한 학생과 함께 담당교사 혹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사와 동행해서 인턴쉽 현장을 방문 ○ 인턴쉽 멘토와 상의하여 학생이 원하는 진로 방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인턴쉽 구성 ○ 인턴쉽 프로그램 구동시 가능하다면 매번 멘토와 만남 혹은 전화통화로 학생의 상황 파악
걸기 단계 - 신뢰 구축 - (1학기 4~5월)	○ 담당교사는 SNS로 학생의 상황 파악 필요 ○ 인턴쉽 현장 멘토는 학생의 진로적 필요 요구나 흥미를 넘어서는 과제를 삽입하여 인턴쉽 프로그램 진행
뛰기 단계 - 신뢰 - (1학기 6~7월)	○ 학생 단독으로 L.T.I. 프로그램 진행 ○ 자신의 L.T.I.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 프로젝트 설정 (e.g. 목공 : 나무의자 만들어 학교나 지역사회에 설치하기)

4) L.T.I.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L.T.I. 진행 과정 요약

구 분	내 용
목공	○ 목공을 진로 희망으로 품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 ○ 학교 인근 목공소 섭외(우다다 목공소) ○ 목공소 멘토 선생님께서 학생 교육에 관심이 많고 특히 멘토 본인이 학창시절 겪었던 경험과 생각들을 되살려 목공 교육에 힘써줌 ○ 목수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이 생겨서 도제 학습으로 발전함
미용	○ 헤어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참여 ○ 미용 학원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중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을 멘토로 섭외 ○ 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전문적 미용기술을 배우기 위한 아카데미 수업을 받고 있음
도서관 사서	○ 혼자 조용히 일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희망 때문에 도서관 사서를 희망함 ○ 지역 시립 도서관장님을 만나서 인턴쉽 협조 요청(직접 방문) ○ 한 학기 동안 사서 역할 중 일부를 맡아서 L.T.I. 실시함 ○ 학기 종료 후 사서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함 ○ 다음 학기에 환경미화원 L.T.I. 신청함

구 분	내 용
환경미화원	○ 지역 출장소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지역 환경미화원 멘토들과 연결됨 ○ 일주일에 두 번 환경미화원 멘토가 환경미화 트럭을 타고 학교 인근 환경미화 실시, 이때 학생과 함께 환경미화 실시 ○ 환경미화원 멘토들이 학생과 함께 환경미화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함 → 한 학기로 환경미화 L.T.I. 종료 ○ 도서관 사서와 환경미화원 L.T.I.를 거치면서 직업체험이 아닌 진로와 학교 내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인턴쉽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함 (e.g. 시간 지키기,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멘토들의 삶 들여다보기, 인내하기 등)
바리스타	○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꿈키움 프로그램 진로 키워드 선택 시 바리스타 에도 관심이 있다고 함 ○ 간호사 L.T.I. 현장을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리스타 L.T.I.로 전환 ○ 처음에는 맞지 않고 힘들다고 투덜뵈. 하지만 계속 바리스타 L.T.I. 에 참여함 ○ 학교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L.T.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 았음 ○ 스스로 계획한 L.T.I. 프로젝트 이후 바리스타가 되겠다고 함
자동차 디자인	○ 학생 스스로 본인은 디자인에 소질이 있고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함 ○ 자동차 디자인 관련 업체에 L.T.I. 섭외 실패 ○ 학교 인근 카센타 섭외(학생이 자동차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본인은 카센타 일에 관심을 보임 ○ 카센타 멘토는 이 학생이 카센타 일에 부적합하다고 함 ○ 멘토의 권유로 다음 학기에 도자기 L.T.I.로 전환
도자기 공예	○ 학생 스스로 도자기 공예에도 관심이 있다고 함 ○ 학교 인근 인턴쉽 현장 섭외가 불가능해서 학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도자 기 마을로 섭외함 ○ 담당 교사가 한달 정도 학생을 도자기 인턴쉽 현장으로 데려다 주고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옴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 참여 ○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학원은 있으나 직업 현장을 L.T.I.로 섭외하기가 불가 능함 ○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 사장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야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지 강의(대안교실 학생 2명 대상)-영어능력이 중요하다고 충고 ○ 영어 과목을 L.T.I. 프로그램으로 참여함

4. 운영 팁 및 유의사항

1) 운영 팁

- 학생들의 인턴십 현장 방문 확인시 카톡 등의 SNS 적극 활용
- 감사패 및 '00고등학교 L.T.I.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서를 붙여 줌으로서 멘토와 인턴십 현장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교육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학부모도 자녀의 직접적인 L.T.I. 멘토가 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도움을 적극 활용함
- 인턴십 현장 멘토와 담당교사 그리고 학생의 관계가 L.T.I. 성패를 좌우함

2) 유의사항

- 학생들이 인턴십 현장에 가기 위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함
- 담당교사는 L.T.I. 프로그램 실시 때, L.T.I. 현장 멘토와 상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L.T.I. 현장의 안전위협요소에 대해서 멘토와 긴밀히 상의해야 함

※ [별첨 1] 프로그램에 필요한 양식 첨부(경남 태봉고 L.T.I. 프로그램 참조)

인턴십 안내의 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을 본교의 일터 멘토로 모시고자 합니다.

본교는 모든 학생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학생 각각의 꿈을 이루는데 학교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본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학생 한명 한명의 눈높이를 맞춘 개별화된 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직업세계를 경험하는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 각자의 관심에 따라 담당교사, 일터 멘토, 학부모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습계획을 짜고 인턴십을 실행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계신 작업 현장에서 생생하게 배우고 더 나아가 도전적이고 역동적으로 배움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 고등학교 인턴십 담당자 ○○○ 올림

(Tel: ○○○-○○○-○○○○/ 010-○○○○-○○○○)

멘토 가이드

일터 멘토란? 인턴(학생)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열정을 가진 전문가로 직업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을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 일터 멘토는?

- ☺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하면서 배움의 길을 안내합니다.
- ☺ 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연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방법과 자신의 학습 과정을 책임지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학생들이 저마다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성장하도록 이끌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넓은 시야로 살피며 조언해줍니다.

♠ 일터 멘토 선생님께 드리는 몇 가지 말씀

- 인턴(학생)에게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필요한 자질을 알려주십시오.
- 인턴(학생)을 위해 일거리나 배울 거리를 마련해주십시오.
- 인턴(학생)이 익혀야 할 일머리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인턴(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인턴(학생)이 출근하는 당일에 다른 일이 생기면, 인턴(학생)이나 학교에 미리 전화해 주십시오.
- 약속 시간에 30분이 지났는데 인턴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담임교사나 학교에 전화해 주십시오.

[별첨 2] 인턴십 활동 계획서

인턴십 활동 계획서				
학생 인적사항	이 름:	담당 교사	이름:	
	연락처:		연락처:	
	주 소:			
	하고 싶은 일(꿈, 잘 하는 것):			
	인턴십 장소: 1) 2) 3) 4)			
멘토	이 름:	직위:	현 장	현장명:
	연락처:			분분야:
인턴 활동과 배움	현장의 특성			
	준비사항 (자세, 복장, 기본적 능력, 필요 기술 등)			
	주요 업무			
	활동 내용			
	알게 된 점			
	멘토와의 인터뷰			
	평가		멘토의 말씀: 20 년 월 일 일 터 멘 토: ○○○ (인) 담당교사 확인: ○○○ (인)	

5. 지역사회연계의 한계

- 1) 교육 비전문성
- 2) 비지속성
- 3) 비체계성

6. 지역대학연계 L.T.I.

MEMO



나이스를 활용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박 창 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나이스(NEIS)를 활용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창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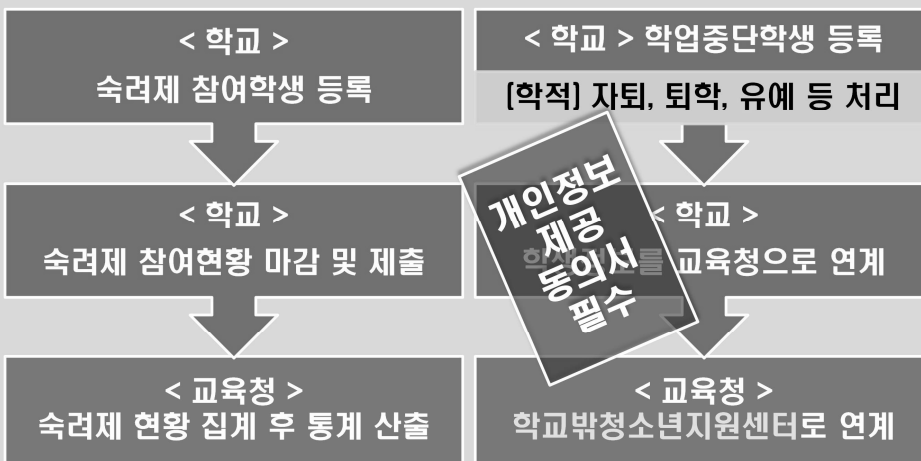
목 차

- 1. 기능별 비교**
- 2. 업무 절차 안내**
- 3. 시스템 사용 방법**
- 4. 기타 안내 사항**

기능 별 비교

메뉴명	숙려제	학업중단학생
목 적	숙려제 참여학생 등록 및 관리	학업중단학생을 학교밖센터로 연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등록대상	재학생	학업중단학생
등록시기	숙려제 실시 전·후	학업중단 발생 직후 즉시
주의사항	학년도 내 등록	동의서 필수

업무 절차 안내



시스템 사용 방법

사전작업

■ 시스템 사용 권한 받기

1. 학업중단예방 업무담당자 학교 나이스 담당자에게 권한등록 요청
2. 학교 나이스 권한담당자

가. 시스템관리_권한관리_사용자권한관리_개인별권한등록...에서
나. 아래와 같은 <사용자그룹명>을 업무담당자에게 등록

시스템	서브시스템	사용자그룹명
학교행정	행정	학교_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담당자

전체메뉴

학생부 PAPS 초등돌봄 개별학교육계획 학적 학생/학부모서비스 입학 보건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학생복지 체육 **상학** > 메뉴더보기

장학/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학사일정 ◆ 기타일정

기본메뉴 업무메뉴

- 학교기본사항관리
 - 학교담당자관리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학업중단학생등록
-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 숙려제대상학생등록
- 마감및제출관리
 - 숙려제접견현황정보마감및제출
 -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최근 사용 메뉴

주간 일정

2015.08.16 ~ 2015.08.29 > 오늘

08.16 일	08.17 월	08.18 화	08.19 수	08.20 목	08.21 금	08.22 토
08.23 일	08.24 월	08.25 화	08.26 수	08.27 목	08.28 금	08.29 토

학교일지/전달사항

최근 3개월

순번	제목	날짜
1	dd	2015.05.27

업무요청내역

업무	요청내용	날짜
----	------	----

숙려제 (숙려제 대상학생 등록관리) 숙려제 대상학생 등록

학교기본사항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숙려제대상학생등록

마감및제출관리

학년도 2016년
시작일 2016.03.01 ~ 2017.02.28
전체 조회

※ 종료일을 입력 시 숙려제집계현황정보마감관리의 집계에 반영됩니다.

관리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시작일	종료일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자퇴, 유예, 면제를 신청한 후 참여	학업중단 위기 징후 사전포착을 통한 참여	자퇴, 유예, 면제 신청 후 학업지
☐ 2016-001	1	1	54	초학생1	2016.11.01	2016.11.02	☒	☐	☒
☐ 2016-002	1	1	54	초학생1	2016.11.20	2016.11.25	☒	☐	☒
☐ 2016-003					2016.11.26	2016.11.27	☒	☐	☒
☐ 2016-004	1	1	30	홍길동	2016.12.10	2016.12.16	☒	☐	☒
☐ 2016-005	1	2	12	홍길동052	2016.12.11	2016.12.15	☐	☒	☐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숙려제 (숙려제 대상학생 등록관리) 숙려제 대상학생 등록

학교기본사항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숙려제대상학생등록

마감및제출관리

학년도 2016년
시작일 2016.03.01 ~ 2017.02.28
전체 조회

※ 종료일을 입력 시 숙려제집계현황정보마감관리의 집계에 반영됩니다.

관리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시작일	종료일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자퇴, 유예, 면제를 신청한 후 참여	학업중단 위기 징후 사전포착을 통한 참여	자퇴, 유예, 면제 신청 후 학업지
☐ 2016-001	1	1	54	초학생1	2016.11.01	2016.11.02	☒	☐	☒
☐ 2016-002	1	1	54	초학생1	2016.11.20	2016.11.25	☒	☐	☒
☐ 2016-003					2016.11.26	2016.11.27	☒	☐	☒
☐ 2016-004	1	1	30	홍길동	2016.12.10	2016.12.16	☒	☐	☒
☐ 2016-005	1	2	12	홍길동052	2016.12.11	2016.12.15	☐	☐	☐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숙려제대상학생 찾기

학년도 2016년
학년 1
학생성명 홍길동052
조회

※ 등록할 학생을 다분류력 하시면 학생이 등록됩니다.

순번	학년도	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1	2016	1	2	12	홍길동052	1900.03.07	남성

닫기

숙려제

- 학교기본사항관리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 숙려제대상학생등록
- 마감및제출관리

학년도 2016년 시작일 2016.03.01 ~ 2017.02.28

전체 조회

※ 종료일을 입력 시 숙려제집계현황정보마감관리의 집계에 반영됩니다.

학생등록 저장 삭제 개인정보삭제 다운로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이후 학업

관리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시작일	종료일	자퇴, 유예, 면제 를 신청한 후 참여	학업중단 위기 정후 사건포착을 통한 참여	자퇴, 유예, 면제 신청 후 학업지
☐ 2016-001	1	1	54	초학생1	2016.11.01	2016.11.02	☒	☐	☒
☐ 2016-002	1	1	54	초학생1	2016.11.20	2016.11.25	☒	☐	☒
☐ 2016-003					2016.11.26	2016.11.27	☒	☐	☒
☐ 2016-004	1	1	30	홍길동	2016.12.10	2016.12.16	☒	☐	☒
☐ 2016-005	1	2	12	홍길동052	2016.12.11	2016.12.15	☐	☒	☐

나이스

?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숙려제

- 학교기본사항관리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 마감및제출관리**
 - 숙려제집계현황정보마감및제출
 -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학년도 2016년 기준일 2017.02.28 접수구분 등록

전체 집계 승인요청

※ 집계 기간은 학년도 기준(예, 2016.03.01부터 기준일까지의 집계)

저장 삭제 마감처리 마감취소 교육청제출 다운로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및 참여자 수

승인 상태	기준일	학교명	계		자퇴, 유예, 면제 신청자		학업중단 위기 정후 사건포착	
			대상자 수 (A=C+E)	참여자 수 (B=D+F)	대상자 수 (C)	참여자 수 (D)	대상자 수 (E)	참여자 수 (F)
☐	2017.02.28	목호초등학교	0	5	0	5	0	0

마감일 제출일 교육청접수일

반려일 2017.01.06 반려사유 반려

※ 검증식 수식

C>=D

E>=F

A>=B

B>=J (상당 and 학습 and 진로직업 and 문화,예체능인성 and 기타)

B>=K (학교 and Wee센터 and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and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기관 and 기타 외부기관)

B<=J (상당 and 학습 and 진로직업 and 문화,예체능인성 and 기타) and (학교 and Wee센터 and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and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기관 and 기타 외부기관)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숙려제 (마감 및 제출관리) 숙려제 집계현황정보 마감 및 제출

학년도 2016년 기준일 2017.02.28 접수구분 등록 조회 집계 승인요청

※ 집계 기간은 학년도 기준(예, 2016.03.01부터 기준일까지의 집계)

저장 삭제 마감처리 마감취소 교육청제출 다운로드

승인 상태	기준일	학교명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및 참여자 수					
			계	자퇴, 유예, 면제 신청자	학업중단 위기 징후 사전포착	합		
			대상자 수 (A=C+E)	참여자 수 (B=D+F)	대상자 수 (C)	참여자 수 (D)	대상자 수 (E)	참여자 수 (F)
☐	2017.02.28	목호초등학교	0	5	0	5	0	0

기안문서상신

기안문서상신

학교급 (중등) 문서종류선택 (학교발령)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숙려제통계마감) 상신

제목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숙려제통계마감을 신청합니다.

선택	종류	구분	위임구분	ID	성명	직위	소속
☐	1	0	기안	078302	교사02	교사(소통)	목호초등학교
☐	2	1	결재	078302	교사02	교사(소통)	목호초등학교

※장정(장학, 장학금)의 경우 반드시 4년(중등) (기안자, 담당부서, 교감, 교장)로 결재경로를 지정하시어(하위) 같은 직위의 결재자는 병행로 뒤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안문 상신이 안됩니다.

내용

※ 표의 내용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학년도	기준일
☐	2016	2017.02.28

닫기

마감일 2017.01.06

반려일 2017.01.06

※ 검정식 수식
 C>=D
 E>=F
 A>=B
 B>=J (상당 and 학습 and 진로직업 and 문화,예체능인성 and 기타)
 B>=K (학교 and Wee센터 and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and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기관 and 기타 외부기관)
 B<=J (상당 and 학습 and 진로직업 and 문화,예체능인성 and 기타) and (학교 and Wee센터 and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and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기관 and 기타 외부기관)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숙려제 (마감 및 제출관리) 숙려제 집계현황정보 마감 및 제출

학년도 2016년 기준일 2017.02.28 접수구분 등록 조회 집계 승인요청

※ 집계 기간은 학년도 기준(예, 2016.03.01부터 기준일까지의 집계)

저장 삭제 마감처리 마감취소 교육청제출 다운로드

승인 상태	기준일	학교명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및 참여자 수					
			계	자퇴, 유예, 면제 신청자	학업중단 위기 징후 사전포착	합		
			대상자 수 (A=C+E)	참여자 수 (B=D+F)	대상자 수 (C)	참여자 수 (D)	대상자 수 (E)	참여자 수 (F)
☐	2017.02.28	목호초등학교	5	5	5	5	0	0

기안문서상신

기안문서상신

학교급 (중등) 문서종류선택 (학교발령)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숙려제통계마감) 상신

제목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숙려제통계마감을 신청합니다.

선택	종류	구분	위임구분	ID	성명	직위	소속
☐	1	0	기안	078302	교사02	교사(소통)	목호초등학교
☐	2	1	결재	078302	교사02	교사(소통)	목호초등학교

※장정(장학, 장학금)의 경우 반드시 4년(중등) (기안자, 담당부서, 교감, 교장)로 결재경로를 지정하시어(하위) 같은 직위의 결재자는 병행로 뒤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안문 상신이 안됩니다.

내용

※ 표의 내용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학년도	기준일
☐	2016	2017.02.28

닫기

마감일 2017.01.06 제출일

반려일 2017.01.06 반려사유 반려

교육청접수일

※ 검정식 수식
 C>=D
 E>=F
 A>=B
 B>=J (상당 and 학습 and 진로직업 and 문화,예체능인성 and 기타)
 B>=K (학교 and Wee센터 and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and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기관 and 기타 외부기관)
 B<=J (상당 and 학습 and 진로직업 and 문화,예체능인성 and 기타) and (학교 and Wee센터 and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and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기관 and 기타 외부기관)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업중단학생 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교기본사항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마감및제출관리

학년도 2016년 학년 전체 반 전체 접수구분 등록 학생성명 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조회 대상학생등록 학업복귀처리 삭제

학년	반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업중단종류	등록일	제출일	반려일
1	2	홍길동052	남성	1900.03.07	면제	2016.12.27	-----	-----

학생성명	홍길동052	학년	1	반	2
생년월일	1900.03.07	성별	남성	학업중단종류	면제
학업중단일	2016.12.27	마감일		제출일	
교육청접수구분	등록	교육청접수일			
반려일		반려사유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업중단학생 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교기본사항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마감및제출관리

학년도 2016년 학년 전체 반 전체 접수구분 등록 학생성명 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조회 대상학생등록 학업복귀처리 삭제

학년	반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업중단종류	등록일	제출일	반려일
1	2	홍길동052	남성	1900.03.07	면제	2016.12.27	-----	-----

학생성명	홍길동052	학년	1	반	2
생년월일	1900.03.07	성별	남성	학업중단종류	면제
학업중단일	2016.12.27	마감일		제출일	
교육청접수구분	등록	교육청접수일			
반려일		반려사유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학생용
[변경]

**법정
대리인용**
[추가]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업중단학생 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교기본사항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마감및제출관리

학년도 2016년 학년 전체 반 전체 접수구분 등록 학생성명 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조치 대상학생등록 학업복귀처리 삭제

학번	반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업중단종류	등록일	제출일	반려일
1	2	홍길동052	남성	1900.03.07	면제	2016.12.27		

대상학생및동의서등록

● 대상학생및동의서등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파일 크기는 2MB 이하입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jpg [찾아보기] [삭제]

● 학생 정보입력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등록 후 학생정보는 학생찾기 버튼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생찾기]

성명 학년 반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선택 거주지) 핸드폰번호

이메일

학업중단일 학업중단종류

(학업중단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항목에 표시, 중복선택가능)

☐ 건강 문제
 ☐ 해외 출국(유학, 이민, 부모님 동행 등)
 ☐ 가정 문제
 ☐ 학습(공부) 문제
 ☐ 감정고시 응시
 ☐ 대안교육
 ☐ 검정고시 응시
 ☐ 취업
 ☐ 엄격한 학교 규칙
 ☐ 선생님과의 갈등
 ☐ 친구와의 갈등
 ☐ 가출
 ☐ 친구 또는 선후배의 권유
 ☐ 기타 [기타 선택 시 필수 기입]

(해당 ☒ 안에 표시, 중복선택 가능)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반란으로 두십시오)
 입학/시험/취업 예정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업중단학생 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교기본사항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등록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마감및제출관리

학년도 2016년 학년 전체 반 전체 접수구분 등록 학생성명 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조치 대상학생등록 학업복귀처리 삭제

학번	반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업중단종류	등록일	제출일	반려일
1	2	홍길동052	남성	1900.03.07	면제	2016.12.27		

대상학생및동의서등록

● 대상학생및동의서등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파일 크기는 2MB 이하입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jpg [찾아보기] [삭제]

● 학생 정보입력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등록 후 학생정보는 학생찾기 버튼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생찾기]

성명 학년 반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선택 거주지) 핸드폰번호

이메일

학업중단일 학업중단종류

(학업중단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항목에 표시, 중복선택가능)

☐ 건강 문제
 ☐ 해외 출국(유학, 이민, 부모님 동행 등)
 ☐ 가정 문제
 ☐ 학습(공부) 문제
 ☐ 감정고시 응시
 ☐ 대안교육
 ☐ 검정고시 응시
 ☐ 취업
 ☐ 엄격한 학교 규칙
 ☐ 선생님과의 갈등
 ☐ 친구와의 갈등
 ☐ 가출
 ☐ 친구 또는 선후배의 권유
 ☐ 기타 [기타 선택 시 필수 기입]

(해당 ☒ 안에 표시, 중복선택 가능)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반란으로 두십시오)
 입학/시험/취업 예정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학업중단학생 등록 (마감 및 제출관리) 학업중단학생 정보 마감 및 제출

- ☒ 학교기본사항관리
-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 ☒ 마감및제출관리
- ☐ 숙려제집계현황정보마감및제출
- ☐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학년도 2016년
학년 전체
반 전체
학업중단종류 전체
접수구분 전체

학생성명
등록일 2016.03.01 ~ 2017.02.28

☐	학년	반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업중단종류	등록일	마감일	승인상태
☐	1	1	홍길동187	남성	1998.12.12	면제	2016.11.30	2016.12.26	완료
☒	1	2	홍길동052	남성	1900.03.07	면제	2016.12.27	2017.01.06	

학생성명	홍길동052	학년	1	반	2
생년월일	1900.03.07	성별	남성	학업중단종류	면제
학업중단일	2016.12.27	마감일	2017.01.06	제출일	
교육청접수구분	등록	교육청접수일			
반려일		반려사유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

학업 중단 학생 등록 (마감 및 제출관리) 학업 중단 학생 정보 마감 및 제출

- ☒ 학교기본사항관리
-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 숙려제대상학생등록관리
- ☒ 마감및제출관리

학년도 2016년 ▾ 학년 전체 ▾ 반 전체 ▾ 학업종단종류 전체 ▾ 접수구분 전체 ▾

학생성명 등록일 2016.03.01 ~ 2017.02.28 조회 승인요청

	학년	반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업종단종류	등록일	마감일	승인상태
☐	1	1	홍길동187	남성	1998.12.12	면제	2016.11.30	2016.12.26	완료
☒	1	2	홍길동052	남성	1900.03.07	면제	2016.12.27	2017.01.06	

학생성명	홍길동052
생년월일	1900.03.07
학업종단일	2016.12.27
교육청접수구분	등록
반역일	

마감처리 마감취소 교육청제출 다운로드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

기안문서상선

기안문서상선

학교급 ▾ 연도 ▾ 문서용유선택 학교발행 ▾ (학업종단위개학상선관리 학생정보마감) 상선

제목 학업종단위개학상선관리 학생정보마감을 신청합니다.

공제자 개인결재선 공제자지정

선택	공제 순번	구분	위임구분	ID	성명	직위	소속
☐ 1	0	가만		078302	교사(조)	목호초등학교	
☐ 2	1	결재		078302	교사(조)	목호초등학교	

※결정대장(재학생, 졸업생)의 경우 반드시 4단결재(가인자, 담당부장, 교감, 교감)로 결재경로를 지정하시어야하며 같은 직위의 결재자는 병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인문 서상이 아닙니다.

내용

※ 위의 내용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학년도	학년	반	학생성명
☒	2016	1	2	홍길동052

합계 확대

기타 안내사항

사용설명서

■ **나이스 광장**사용자 지원시스템 [<http://help.neis.go.kr>]
- 자료광장_사용자 설명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료광장_사용자 설명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 의 방 법

■ **나이스 메뉴화면 우측 상단**  **질의등록** **버튼**
 또는 **나이스 광장** 사용자 지원시스템 **질의등록**

또는 나이스 광장사용자 지원시스템 질의등록

MEMO

MEMO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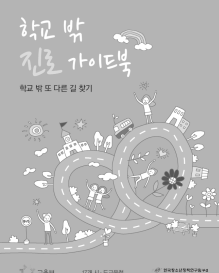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Homepage: www.gotoschool.re.kr

■ 매뉴얼 및 프로그램·우수사례집

1 학업중단 예방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자료실>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길라잡이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교사용) -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 -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방안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및 단계별 운영방법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	2015.02.27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길라잡이 - 부록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 17개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목록	2015.02.27
 2014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2014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교원부문 25개, 학생부문 5개 사례	2015.04.16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학교 밖 또 다른 길 찾기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 학교 밖 상담·학업·취업 및 진로·경제적 지원 안내 및 관련 기관 소개	2015.08.25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생·학부모를 위한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위기 대처 방안, 관련 정책 및 위기 극복 사례 소개	2016.01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교원부문 34개, 학생부문 5개, 꿈키움 멘토 부문 17개, 지역사회 지원기관 종사자 부문 17개 사례	2016.08.2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 운영 가이드(8개),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26개), 총 34개 프로그램 수록	2017.3.30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교부문 32명, 학생부문 5명, 꿈키움 멘토링 부문 18명, 지역사회 지원기관 부문 18명 사례	5월 배포 예정

② 대안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집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 대안교실의 이해 - 대안교실 운영 가이드 -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형 - 학교 별 특성 (10개 학교 사례)	2016.03.08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1개 사례	2016.03.08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가이드북 -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의 이해 - 진로의사결정에서의 고려 사항 - 학교 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4개 학교 사례)	2016.04.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위탁교육기관용) - 위탁교육 학생 이해 및 생활지도 - 프로그램 모형 - 학생 위·수탁절차 및 교무·회계 행정 - 묻고 답하기 - 부록(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례, 지역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2017.2.20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교 내 대안교실에 참여하고 변화된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4월 배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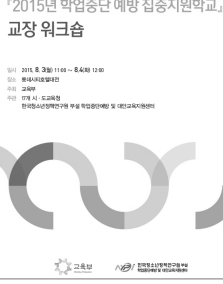
③ 꿈키움 멘토단 매뉴얼 및 프로그램집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꿈키움 멘토수첩	꿈키움 멘토수첩 - 멘토링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 멘토링 상담·활동·튜터·면담일지, 멘토링 운영 활동계획서	2014.05.27
 꿈키움 멘토링 매뉴얼	꿈키움 멘토링 매뉴얼 - 꿈키움 멘토링의 개요 -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 - 멘토링의 실제: 운영절차 및 학교·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 멘토를 위한 지침 - 꿈키움 멘토링 사례	2016.03

■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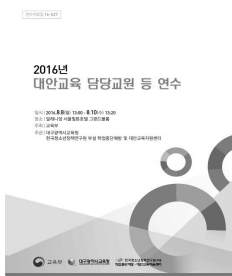
① 학업중단 예방 연수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 - 학업중단학생 실태, 지원 및 연계 방안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사례 -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기법	2014.02.03
 2014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014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대응 방향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 학업중단 위기 과정에 따른 상담기법 - 학업중단 예방 운영 사례	2014.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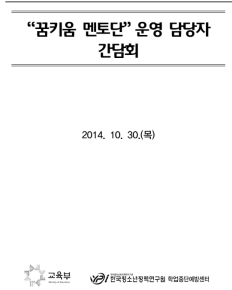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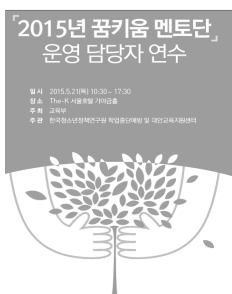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일시 2015. 2.23(화) 11:00 ~ 2:26(목) 16:00 장소 17호교 교육관 3층 주최 교육부 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청소년상담지원국, 한국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 학업중단 위기관리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계 사례	2015.02.16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일시 2015. 7.30(목) 11:00 ~ 7.31(금) 16:00 장소 The N서울타워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국, 한국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 학업중단 위기관리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계 사례	2015.07.2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일시 2015. 8. 30(화) 11:00 ~ 8.31(목) 12:00 장소 롯데호텔서울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국, 한국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개 권역 실시)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사업 소개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와 멘토링을 위한 지원 방법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사례 - 해외의 학업중단 예방 대책	2015.07.30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일시 2016. 2.23(화) 11:00 ~ 2:26(목) 16:00 장소 The N서울타워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국, 한국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꿈키움 멘토링)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사례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2016.02.16
 2016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일시 2016. 8. 22(수) 13:30 ~ 17:00 장소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300호 대강당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국, 한국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2016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2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부 주요정책 소개 - 리더십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학교 공동체 구성 - 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교육적 대응 -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2016.08.26

2 대안교육 연수 (자료실>통합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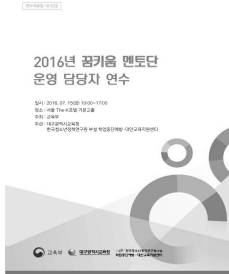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 	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 - [심리특강]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안, 대안 교육 톺아보기 - [진로교육특강] 웃음을 활용한 진로지도, SCEP 진로교육 프로그램 - [리더십특강]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리더십 - 대안교육 모범프로그램(영산 성지교)	2014.08.22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 구성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 대안교실 운영사례	2015.05.22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 동기회복법: 청소년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및 동기회복 프로그램 - 창의적 진로개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청소년 기업가정신) - 진로지도 사례 - 대안학교 대입진학지도	2015.07.0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 - 대안교실 운영 사례	2016.01.2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2016.05.09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 대안교육 정책의 이해 - 위기학생의 심리와 정신건강 - 동기개발 프로그램 - 대안교육 진로탐색 사례 (창의적 체험활동, L.T.I.프로젝트) - 대안교육 담당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2016.08.08

3 꿈키움 멘토단 연수 (자료실>통합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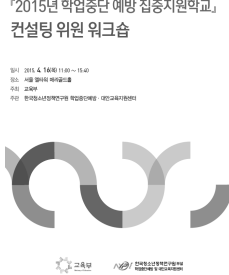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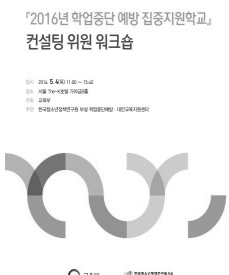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지원 방안 - 청소년 멘토링의 이해와 운영자의 역할 - 멘토링 사업 기획과 운영방안	2014.05.27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	- [전문가특강] 학업중단 청소년과 멘토링 - [사례 발표] ‘제주도 꿈키움 멘토링’	2014.10.30
 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 계획 - 꿈키움 멘토링과 관리자의 역할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사례	2015.05.20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일시: 2016. 07. 15(금) 10:00~17:00 장소: 서울 74~75층 742교실 대상: 교육청 주최: 한국청소년상담지원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지원청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학업중단 예방 정책 소개 - 멘토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 - 꿈키움 멘토단 운영사례 (교육지원청, 교육청, 학교, 민간단체)	2016.07.15

■ 컨설팅

1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5. 4. 16(목) 11:00 ~ 15:00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742교실 대상: 교육청 주최: 한국청소년상담지원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지원청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소개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 및 실무안내	2015.04.16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6. 5. 4(목) 11:00 ~ 15:00 장소: 서울 74~75층 742교실 대상: 교육청 주최: 한국청소년상담지원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지원청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 발표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의 역할 이해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	2016.05.04

2 대안교육 컨설팅 (자료실>통합자료실)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5. 4. 23(목) 11:00 ~ 16:00 장소: 경기도교육청 4층 401회의실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대안교육지원센터 (연세대학교출판부)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교 내 대안교실 추진계획 및 컨설팅 사업 소개 -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 2015.04.28
「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5. 6. 5(목) 10:00 ~ 17:00 장소: 서울 강서구 강서동 10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대안교육지원센터 (연세대학교출판부)   	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	-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 및 영역 (프로그램 설계, 동기유발, 직로직업 심리검사, 대학진학·비진학자 경력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해 -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내용 및 실무안내 2015.06.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6. 4. 14(목) 11:00 ~ 16:00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4층 401회의실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대안교육지원센터 (연세대학교출판부)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 - 시·도별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사업 소개 및 향후 추진 일정 논의 2016.04.19

■ 국제포럼 (자료실>통합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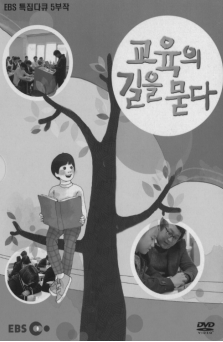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정책과 실천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4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 Policy and Practice 2014년 9월 25일(목) 9:00 ~ 20일(토) 12:00 The K Hotel Seoul, Geomungo Hall September 25-30, 2014 The K Hotel Seoul, Geomungo Hall	2014년 대안교육 국제포럼 -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대안교육 발전 동향 및 정책현황 - 샌즈스쿨(영국), 메트스쿨(미국), 발도르프학교(독일), 헤스테하베 자유학교(덴마크), 이우학교(한국) 등 대안교육 사례	2014.09.25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5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2015년 9월 16일(수) 09:30 ~ 18:00 The K 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교홀	2015년 대안교육 국제포럼 - 독일, 호주, 덴마크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 - 생산적 학습(독일), 핸즈온 러닝(호주), 곤잘로 가르자 독립학교(미국), 빅피처 러닝(미국), 프레네 교육(프랑스),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쿨레(덴마크) 등 대안교육 사례	2015.0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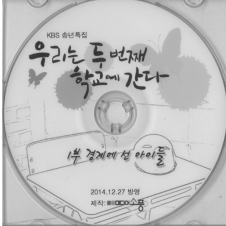
■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리플릿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아름다운 학교 가자! 학교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학업중단 예방 리플릿 (알림공간)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나요? - 학업중단숙려제·학생지원·예방체제와 대안 교육에 대한 소개	
 모두를 위한 대안교육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정책 (자료실)통합자료실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정책 소개	2016.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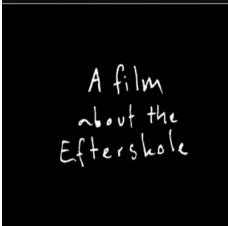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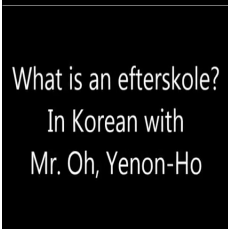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재적교용 리플릿)	(자료실)통합자료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개념 - 위탁교육 대상 학생 선정방법 -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 소개 - 학생 위탁절차 - 학생 위탁 시 유의점 - NEIS 입력방법	2016.8.31

■ 영상 콘텐츠 (자료실>영상 콘텐츠)

“교육의 길을 묻다” (E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교육, 다시 대안을 찾다	- 밀알 두레학교, 간디 자유학교, 덴마크 자유 학교, 독일 발도르프 학교 등 국내·외 대안 학교 장·단점	44'57"
	2부 거리에서 헤매는 학교 밖 아이들	-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가출, 비행 등) - 학교 밖 청소년 포용 방안 모색	47'56"
	3부 변화? 힘들지만 두렵지 않다	-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샘물의 집, 경북청소년 진흥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사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양립한 일본 오사카부립 슈토쿠 학원 사례	46'42"
	4부 기로에 선 학교 부적응 아이들	-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종암중학교의 신바람 대안교실 프로그램 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	48'05"
	5부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교육복지	- 농어촌 교육환경을 극복한 군포중, 속리산중 소개 - 다문화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48'35"

“우리는 두 번째 학교에 간다” (K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경계에 선 아이들	-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와, 현재 학업중단과 복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56'55"
	2부 세상을 향해 외치다	- 좌절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연극치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56'07"
	1부 SOS 학교 밖 아이들	-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업중단 원인별 학생들의 이야기	11'07"
	2부 벼랑 끝에서 만난 두 번째 학교	- 서울시 친구랑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성공 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등 학업중단 예방 제도	11'27"
	3부 학업중단자를 위한 세계의 학교	- 일본 프리스쿨 도쿄슈레, 덴마크 애프터스쿨, 미국 빅피쳐스쿨 등 해외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11'43"

“대안교육을 돌아보다” (S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학교의 현실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 다인학교 등 국내 대안학교의 특징과 덴마크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56'
	2부 대안학교의 미래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운영사례 - 덴마크(니스테드 애프터스쿨레), 프랑스(프레네 교육) 등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및 우수사례	50'
	1부 대안학교 문제 사례	-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점 등 국내 대안교육의 실체	14'28"
	2부 국내 대안학교 우수사례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우수사례 - 공립학교(웅상중) 대안교실 우수사례	12'24"
	3부 해외 대안학교 우수사례	- 덴마크, 프랑스 등 해외 대안학교 운영 우수 사례	16'57"

2015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시간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소개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의 일과와 다양한 활동을 소개	1'47"
	미국 곤잘로가르자 독립고등학교 소개	곤잘로가르자 학교는 위기학생의 수행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7'01"
	Hands On Learning	국내의 '학교 내 대안교실'과 비슷한 해외사례. 팀프로젝트, 목공, 집짓기 등 다양한 노작활동 중심의 활동 학습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또는 스스로 성공경험을 쌓아가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습득하며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4'49"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 (애니메이션)	덴마크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숙학교인 에프터스콜레에 대해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는 영상	2'36"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국문)	덴마크 에프터스콜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58"

MEMO

MEMO

MEMO

MEMO

MEMO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

인 쇄 2017년 4월 4일

발 행 2017년 4월 4일

발행처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인쇄처 경성문화사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044-415-2159)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